

'군 단위 농촌의 기적'... 장성군, 1년 새 인구 1116명 늘었다

첨단3지구 입주 시 최대 1만 명 증가 예상... 중장기적 인구 구조 변화

장성군이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우려를 해소하는 유의미한 통계를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집계된 장성군의 인구는 4만 4369명으로, 1년 전보다 111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장성읍에 들어선 793세대 규모 '대광로제비양' 아파트가 꼽힌다. 현재까지 767세대, 1776명이 입주를 마치면서 장성읍을 중심으로 주거 수요와 생활 인구가 크게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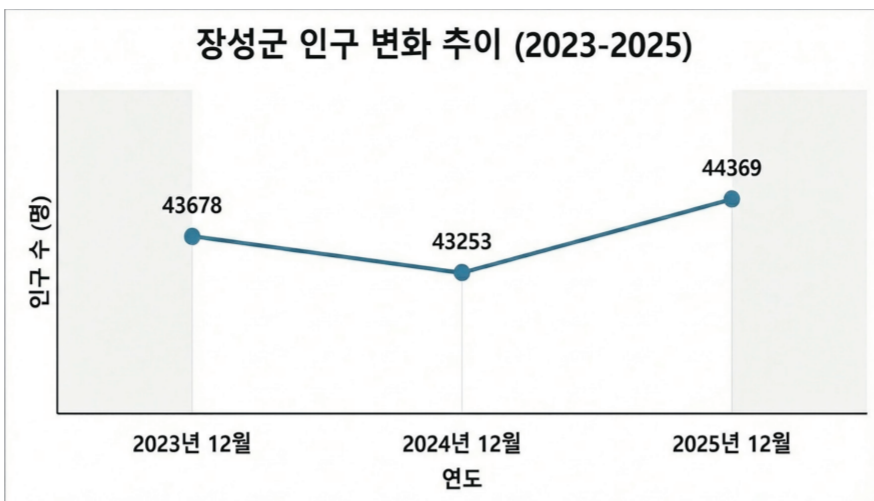
장성의 이같은 인구 증가 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인구 구조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올 하반기부터 3729세대 규모의 첨단3지구 광주연구개발특구 주거단지 입주가 시작되는데, 인구가 환산하면 8000명에서 최대 1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장성군에 1개 읍이 더 생기는 셈이다.

5만 명을 훌쩍 넘어사게 될 인구에 대비해, 장성군은 체계적인 사회간접자본 확충

과 더불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최대 400만 원 규모 '결혼축하금' 지급을 비롯해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산생아 양육비 △출생기본수당 △출산 축하용품 △첫 만남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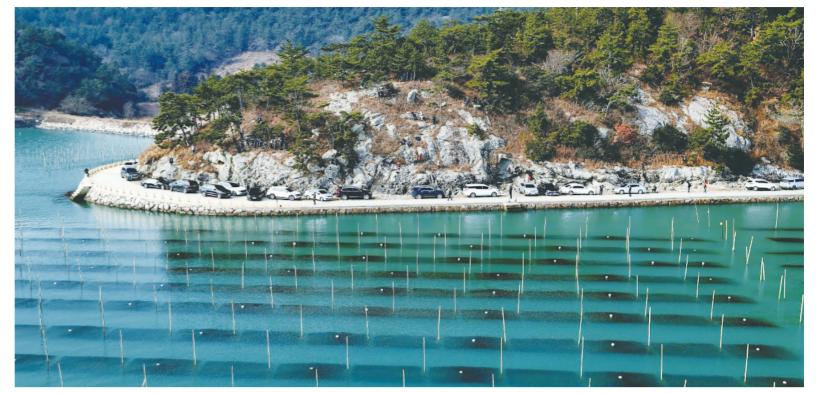
청년 정책 추진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군은 2월 중 '청년센터'를 개관할 계획이다. 취·창업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역 청년 누구나 소통·교류하는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외식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도울 '장성미식산업진흥원'도 주목된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음식 개발과 교육, 지역 농산물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등을 펼친다. 오는 4월 무렵 개원할 예정이다.



항동농협 하나로마트 건물을 수선해 청년상가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외식업 장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공간을 제공해 항동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

인 주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친정 보내기 △국적취득 비용 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추진 중이다. 장성/황해연 기자



초록빛 바다목장 '장흥 매생이 양식장' 사진명소로 각광 겨울 어촌의 특별한 풍경, 대덕읍 웅암마을에 활기

장흥군 대덕읍 매생이 양식장이 겨울철 사진명소로 주목받으며 전국 사진 작가와 동호회 회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겨울이 되면 대덕읍 매생이 양식장에는 잔잔한 바다 위로 초록빛 매생이와 어민들의 채취 작업이 어우러져 특별한 어촌 풍경이 펼쳐진다.

이 독특한 풍경은 사진 애호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해마다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사진 촬영은 주로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이루어지며, 이 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겨울 바다와 매생이 채취 장면을 담을 수 있다.

평일에는 하루 평균 200여 명, 주말에는 500여 명의 사진작가와 동호회 회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대덕읍을 찾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인 17일과 18일에는 1,000여 명이 웅암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일대가 사진작가와 동호회원들

로 북적였다. 촬영에 나선 사진작가들은 이른 새벽부터 해 질 녘까지 푸른빛을 품은 겨울 바다와 매생이 채취 장면을 담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사진 촬영객들의 방문으로 겨울철 한산하던 마을에 모처럼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도 이어졌다.

마을을 방문한 한 사진작가는 "겨울철에는 사진 촬영 소재가 부족한데, 매생이 양식장은 색감과 분위기가 뛰어난 피사체"라며, "웅암마을은 풍경도 아름답지만 주민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줘 매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송병석 대덕읍장은 "대덕읍 매생이는 갈슘과 철분 등 미네랄이 풍부한 겨울철 대표 건강식품"이라며, "사진 촬영객 방문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만큼, 앞으로 편의시설 확충과 관광자원 연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

완도군은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업체가 완도군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완도해양치유센터, 특산물 판매장 등을 이용할 경우 지원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완도군,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확대

완도해양치유센터 경유 여행 상품 개발 시 추가 지원

지원 기준은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10명 이상 유치 시 당일 기준 체도(육지)권은 1인 당 12,000원, 섬 지역은 15,000원이 지원된다.

1박의 경우 체도권 15,000원, 섬 지역은 18,000원, 2박 이상일 경우 체도권 18,000원, 섬 지역은 21,000원의 인센티브를 제

공한다.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경유할 시 당일 체도권은 25,000원, 섬 지역은 28,000원이 지원된다.

1박 이상 체도권은 30,000원, 섬 지역 33,000원, 2박 이상 체도권은 35,000원, 섬 지역은 38,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특히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경유(1박 2일 이상)하는 '완도 치유 관광' 관광 여행 상품을 개발·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는 관광객 1인당 5,000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여행사는 여행 3일 전까지 단체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를 군에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와 관광지, 음식점 영수증, 숙박 시설 이용 확인서, 승선권 영수증(섬 방문 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완도/양선우 기자

고흥군,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 지원금 상향

가업승계 청년 1인당 최대 2천5백만 원 지원... 5명 선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2천2백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자부담 10% 포함)으로 상향하고, 오는 2월 13일까지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은 (조)부모의 농·수·축산업 및 소상공업을 승계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설 투자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산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상향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시설·장비 구축 비용 증가 등 최근 경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청년 가업

승계자의 실질적인 수요를 고려했다. 지원금은 농·수·축산 시설물 설치·개보수,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적용 시설 개선, 점포 노후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으로, 본인과 (조)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에 있고, (조)부모의 농·수·축산 또는 소상공업 등 가업을 승계받은 지 5년 이내인 청년이다.

사업대상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사업장 현장실사를 거친 뒤,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고흥/박도일 기자

광양시, 봄의 신호탄 '톡톡'... 소학정 매화 전국 첫 개화

광양시, 봄의 신호탄 '톡톡'... 소학정 매화 전국 첫 개화

광양시는 절기상 가장 추운 대한(大寒)을 앞둔 가운데, 광양 소학정 매화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화하며 이른 봄의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

소학정 일원에서는 최근 매화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하며 개화가 확인됐으며, 이는 매년 전국 최초 개화지로서 소학정이 지닌 상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른 개화 소식으로 소학정 일원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으며, 개화 상황에 대한 현장 확인과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광양시는 이러한 개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로 25회를 맞는 광양매화축제를 앞두고 누적 기온과

일조량 등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화 일정 시기를 판단해 1월 말 축제 개최일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축제 기간 동안 매화 개화 일정 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교통·안전·편의시설 등 관광 수용 태세 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소학정 매화는 광양매화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꽃"이라며 "현재 개화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과학적 지표와 현장 여건을 종합해 관광객들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매화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영암군, 통합문화이용권·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확대

영암군민 문화 향유 기회 확장... 각각 최대 16만원, 20만원 지급

영암군이 올해부터 최대 통합문화이용권을 16만원, 청년문화예술패스를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영암군민이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문화 향유 기회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와 비교해 지원 규모를 넓힌 것.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지난해에서 1만원 인상된 15만을 지원한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여행·체육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이 이용권은, 13~18세 청소년, 60~64세 생애전환기 주민에게는 1만원 더 추가 지급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이달 21일까지 자동 재충전되고,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 준다.

공연·전시 관람에 쓸 수 있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세에서 19~20세로 확대해

지급한다. 지원금액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영화관도 사용처에 추가해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올해 신규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2/2일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와 영암군 홈페이지, 휴대전화와 앱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25일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김철 영암군 문화예술과장은 "경제 형편에 상관없이 문화예술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넓혀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